

원내 4당 공동 선대위 구성 “우리 후보는 1번 이재명”

혁신당, 민주 선대위 산하기구 ‘조국혁신위’ 출범…다수 정당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조국혁신당이 13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 ‘조국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은 결국 하나를 위해서”라며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구성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다수를 위한 선거연대 방식이다. 한 차원 높은 그 출발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지금 우리 기호는 1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누구보다 맹렬하게, 사색성의 각오로 뛸 것이다. 이번 대선은 정당들만의 경쟁이 아니다”면서 “국민과 내란 세력, 그리고 응원봉과 총칼 간의 대결이며,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전두환·전관호 망상 간 대결이며, 상식과 몰상식, 원칙과 반칙,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의 상대는 명백하다. ‘윤건희’ 부부, 사법 엘리트, 정치검찰, 계엄 세력,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친일 뉴라이트와 같은 친윤 언론과 유튜

버, 수구 기득권 과두 카르텔이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1호 당원이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이다. 극우, 반민주, 친일, 반노동, 파쇼적인 인물이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지도부는 물론, 의원·당직자, 시·도당 위원장까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와 함께 하겠다”며 “내란 세력의 반헌법 행위를 낚낱이 추적하겠다. 법복 귀족과 법비의 준동을 막고 법원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김 권한대행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혁신당은 앞으로 민주당과 공동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회, 주요 지역 공동 유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선대위 김경수·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실현해야 할 내란종식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당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 위원장도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 의 쇄빙선 역할을 해줘 왔다.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에 함께 하자”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정권 교체 힘 모으고 혁신당 2.0 시대 열 것”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후보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서왕진(비례대표·광주시당 위원장·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으고 민주정부 시대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의 1년이 비판과 투쟁, 그리고 광장에서 외침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면, 대선 이후의 1년은 내란정부의 붕괴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사회 변혁을 향한 굳센 의지와 유능함을 발휘할 의회와 국정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선거 동안 내란정당이 감행한 ‘후보 교체 쿠데타’라는 후안무치를 폭도하면서, 민주진영의 압도적 승리만이 민주공화국 복원이라는 시

대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다”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기 위해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진심을 전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이 가진 전문 역량을 잘 조직하고 극대화하는 전략과 원내 운영 시스템을 갖춰, 더욱 강력한 조국혁신당으로 국회의 힘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주요 경찰청을 도별로 순회하는 ‘검찰 해체 선포대 조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이 정치보복 수사의 상징이 된 검찰독재를 심판하고,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선거라는 의미를 알리기 위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부 내 내란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장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따른 지역 소외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지역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정부 집권 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통 부족 등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이 호남권의 에너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며, 광주 AI 중심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율동보다 민심 청취…민주, 선거운동 진화

선거운동원, 민원 취합위해 ‘경청 수첩’ 기록…집권후 정책 반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민심을 수렴해 대선 승리 후 집권을 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선거운동 기간 출퇴근 선전전을 제외하고 운동원들의 율동전을 볼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 선전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율동을 진행하지만, 이후 나머지 대선 선거운동에서는 율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율동 제한을 제안한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은 “과거 보여주기식 선거운동보다는 실질적인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면서 “율동보다는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실있는 운동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 대

선 선거운동원들은 ‘경청(傾聽) 수첩’을 쓰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지역민들의 민심을 잊지않고 적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민원 등을 모두 취합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청수첩은 민주당 광주시장 당직자, 기초의원, 지역위원장 등 선대위 관련자들 모두가 선거현장에서 작성한다. 작성된 경청수첩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면 민주당 중앙당으로 보내진다. 중앙당은 수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려 집권후 중앙과 지역 정책에 반영한다.

양 위원장은 “정치의 첫발은 국민의 민심을 잘 듣는 것 부터 시작”이라면서 “광주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지역에 해결해야 할 민원과 민심을 빼곡히 적어 집권 후 세워질 민주당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IA, 5·18 홍경기 응원전

▶1면에서 계속

광주시는 5·18의 의미를 담고 희생자들의 뜻을 승화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의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오월단체들은 “광주시의 의견에 동의하고 미래세대가 5·18을 기

이재명 49.5% vs 김문수 38.2%

한길리서치 조사 이준석 5.7%… “민주당 중심 정권 교체” 51.1%

‘6·3 조기대선’ 공식 후보 등록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따르면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 지지율을 38.2%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5.7%)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 없음은 3.1%, 잘 모름 1.9%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를 넘어선 11.3%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5%, 국민의힘 36.8%,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2.2%, 기타정당 2.6%, 진보당 1.0% 등의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 없음은 9.9%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1%,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철민(980823-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정읍성로 7, 205동 1005호(양림동, 광주양림휴먼시아)
피상속인 망 김철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343645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14일
• 상속인 : 이영심(631005-2XXXXXX)
광주 남구 정읍성로 7, 205동 1005호 (양림동, 광주양림휴먼시아)
• 신고기간 : 2025. 5. 14. ~ 2025. 7. 24.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영심의 주소

분 실 공 고

• 공급계약서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7번지 한국아메리온 트리플위너 12층 17호
• 계약자 : 노 수 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5년 5월 14일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만 222-8171
• 안 산 571-7658 • 오 차 286-76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문 영 222-9054
• 동 부 226-6001 • 동 영 222-9054
• 총 집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북 산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편 376-6511 • 총 영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뒷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용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